“진관사 태극기, 국보 가치 충분…태극기 박물관 필요”

진관사 등 ‘백초월 스님’ 학술세미나 개최

진관사 태극기 의미 · 가치 조명
일장기 개조 태극기 희소성 높고
당시 독립운동 의지 확인 가능해
“근대 태극기史 새길 박물관 필요”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6월 29일 서울 한문화체험관에서 열린 ‘백초월 스님 순국 81주기 및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에서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과 태극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 배지로 착용해 국민적 관심이 고취되고 있는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과 태극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6월 29일 서울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흙다움에서 열린 ‘백초월 스님 순국 81주기 및 광복 8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이광표 서원대 교수는 태극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송명호 전 중부대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의 국보 승격의 당위성을 각각 발표했다.

사단법인 백초월스님 선양회(이사장 법해 스님)와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주최한 이날 대회는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불교의 호국정신을 실천하며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백초월 스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진관사 태극기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광표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의 기억과 향유: 태극기 박물관의 필요성’에서 진관사 태극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살피고 태극기 박물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 과정과 태극기의 제작 방식, 함께 발견된 동반 자료 등은 모두 이례적이며 극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특징은 앞으로 진관사 태극기를 수용하고 기억하며 선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 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 과정과 이후 언론보도 등을 예로 든 이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에 얽힌 스토리는 그 어떤 문화유산보다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역사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스토리가 대중과 공유될 때 대중은 문화유산을 더 기억하고 향유하며 후대에 전승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태극기 박물관은 진관사 태극기와 그것이 오랜 세월 감싸고 있었던 독립운동 관련 신문과 문건 등 동반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근대기 태극기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생동감 넘치게 이해하고 경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극기 전문가인 송명호 전 중부대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가 국보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의 재조명-보물에서 국보로’ 주제 발표에서 진관사 태극기의 발견에서 보물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살피고, 문화유산의 지정기준에 근거해 승격 필요성을 고찰했다.

송 전 교수는 진관사 태극기가 △우리나라 사찰 중 태극기가 최초로 발견된 점 △일장기 위에 태극기를 덧그린 것 중 가장 오래된 현존 태극기라는 점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을 태극기에 접어 싸서 숨겨둠으로써 보존시킨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관사 태극기의 이러한 배경과 의미는 당시 사찰에서 보여준 독립의지와 항일투쟁의 한 단면이자, 태극기 제작 기법 등 변천 과정을 연구하고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 자료로 아주 희귀하고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송 전 교수는 다른 나라에서 국기를 국보로 지정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고 “백초월 스님이 저항과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일장기를 개조해 태극기를 만든 희소성과, 그 시대적 배경이 100년을 훌쩍 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갖는 만큼 국보로 승격 지정 보존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개회식에서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자 백초월 스님의 순국 81주기가 되는 해”라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백초월 스님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오늘 세미나는 미래를 향한 실천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스님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나라사랑이 널리 선양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석전 스님 新발굴 한시집 담긴 내용은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석전전서 편찬 학술대회
‘석전속시초’ 해제 발표돼
임제종 운동 매진 1911년
광주감옥 투옥 사실 확인



근현대 불교 선지식 석전 박한영(1870~1948·사진) 스님의 전서 편찬 방향성 정립을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서 편찬 과정에서 새로 발굴된 석전 스님의 한시집 〈석전속시초〉의 해제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부교수(석전전서사업단 팀장)는 ‘영호당 대종사의 신자료 〈석전속시초〉’를 통해 〈석전석시초〉의 내용들을 공개했다.

특히 이 중에는 석전 스님의 연보에도 포함되지 않는 기록들이 확인돼 주목된다. 김 교수에 따르면 〈석전속시초〉 수록된 ‘안료원중잡감’ 13장은 석전 스님이 병원에서 눈 수술을 하며 고생했던 일과 소회를 담은 7언 절구의 한시다. 이 글의 서문에는 이 같은 기록이 담겼다.

“내 평생 만난 극심한 곤란은 세 번 있었다. 그 하나는 신해년(1911) 여름, 법망에 걸리는 액운을 만나 저 광산 감옥(광주교도소)에 들어가 귀신 무리가 돼 70여 일 갇혔다가 풀려난 것이다.”

1911년 당시 석전 스님은 이회광의 원종과 대립하며 임제종 운동에 매진했던 시기로, 김 교수는 임제종 운동 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추정했다. 김 교수는 “석전 스님이 임제종 운동을 전개하던 중 일제의 사찰령에 저촉되는 빌미를 제공해 70일간 투옥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구체적 연유는 학계와 교계가 추적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3부로 진행됐다. △근세 불교의 비판적 지성 석전 영호(이상하, 한국고전번역원) △석전의 유식·인명 주석 연구(박인석, 동국대) 등이 발표됐다.

한편, 동국대는 한국 근대 불교학과 동국 인문학 전통에 초석을 놓은 석전 스님의 전서 편찬 사업을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이다.

신중일 기자

화엄사 중창 벽암 대사 비문,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7월1일 지정예고
‘화엄사 벽암대사비’ 등 9건


보물 지정예고된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

지리산을 대표하는 고찰인 구례 화엄사를 중창했던 벽암 대사의 비문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또한 해인사와 성주사의 불상과 전등사 명경대, 대혜보각선사서 등의 불교문화유산들도 대거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를 비롯해 △대혜보각선사서 △합천 해인사 금동관음·지장보살이존좌상 및 복장유물 △창원 성주사 석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강화 전등사 명경대 △삼척 흥전리사지 출토 청동정병 등 총 9건을 보물로 각각 지정예고했다”고 7월 1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예고된 ‘구례 화엄사 벽암대사비’는 임진·병자 양난 이후 화엄사 중창 등 피폐화된 불교 중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벽암 대사(1575~1660)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입적 3년 뒤에 세워진 비석이다. 비문은 당대 영의정이었던 이경석이 짓고, 명필로 알려진 오준이 글씨를 썼으며, 전액(篆額)은 도승지를 지낸 조계원이 썼다.

이 비석은 신라시대 이래 지속되어온 귀부(龜趺, 받침돌)·비신(碑身)·이수(螭首, 머리돌)로 구성된 석비 형식을 따르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스님의 비석이 많이 건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건립된 희귀한 사례로, 처음 건립된 이후 현재까지 원위치에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고 보존 상태도 양호한 편”이라며 “비석을 세운 시기, 비문을 지은 사람, 비문 글씨를 쓴 사람, 전액을 쓴 사람을 모두 기록하고 있어 17세기 비석 연구에 기준이 되므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대행선硏, ‘지구위기와 환경’ 계절발표회

7월 19일 안양 한마음선원서
방송인 줄리안 등 패널 참여
기후 위기 극복 방안 등 토론

기후 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및 불교적 방안을 살피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안양 한마음선원 본원 3층에서 ‘지구위기와 환경’을 주제로 제23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계절발표회는 학술 연구 논문 발표 형식이 아닌 기후 및 환경 전문가들의 특별 강연을 듣는 형식의 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참여 패널들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방송인이자 환경운동가로 잘 알려진 줄리안 퀸타르트 제로웨이스트샵 노노샵 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의 열쇠 :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결정적 변화들과 세계가 보내는 긍정적인 신호’를 통해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극복의 움직임을 소개하며, 환경인플루언서 홍다경 씨는 ‘청년이 보는 지구위기와 샛별’을 통해 청년의 시점으로 기후 위기 문제를 살필 예정이다.

박정훈 KBS 교양다큐2국 책임프로듀서는 ‘자연 다큐멘터리 PD가 바라본 지구 생태계 위기 : 〈플라스틱 코끼리〉와 대기획 〈빙하〉를 중심으로’에서 생태계 위기의 참혹한 현실을 영상과 함께 전한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생태위기와 불교적 깨달음’을 주제로 기후 위기 시대 불자들의 실천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계절발표회에서 이뤄지는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는 발표회 주제에 맞춰 ‘지구를 위한 한마음선원 공생 실천: EM 지구사랑 작은실천’을 주제로 혜눌 스님(지구사랑 작은실천 환경교육사)이 발표한다.

한편,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031-470-3277

신중일 기자

“불교 장례, ‘자연장’ 확대 필요”

은해사 등 6월 30일 학술세미나
장례 · 납골 개선 방안 논의 진행

한국사회의 화장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교 장례·납골문화가 봉안당(납골당)에서 자연장으로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덕조 스님)와 불교신문(사장 수불 스님)은 6월 30일 서울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불교 장례·납골문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성수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한국불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실태와 대안’을 통해 불교 자연장 확대를 주장했다. 이 국장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화장률은 2014년 1월 77.9%에서 2025년 3월 93.9%로 10년여 동안 16% 증가해 사실상 화장이 보편적 장례로 자리잡았다.

화장의 급증은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인 봉안당의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 ‘다비’로 대표되는 화장을 장례문화로 보유한 불교의 경우 이 같은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불교계 봉안당은 186곳이 운영 중이며, 전체 봉안시설 중 32.3%에 달한다. 지역적으로 경기도(39개), 경상북도(31개), 경상남도(28개) 등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장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법령을 개정해 산분장을 제도화 했으며, 이를 통해 산분장 이용률을 오는 2027년까지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변화하는 장례 트렌드에 따라 사찰에서 자연장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불교계 자연장지는 총 31개소로, 이는 전체 자연장지에 18.9% 해당된다. 이 국장은 “불교계는 봉안시설 운영에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나 자연장지 운영에는 상대적으로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자연장 분야에서는 타종교나 일반 사설 법인 참여가 활발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국장은 불교적 자연장 모델로 영천 죽림사 휴림원 추모공원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불교의 생사관과 봉안당 문화’를, 이범수 동국대 교수는 ‘한국불교 장례(장의)문화 변화 고찰’을 각각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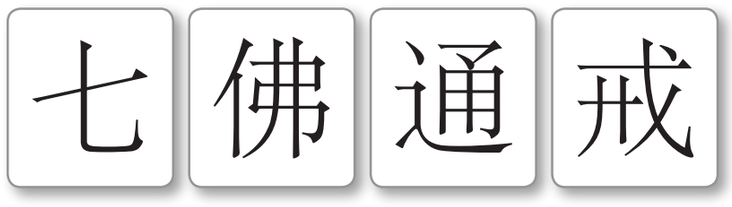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① 칠불통계

인생서 중요한 건 속도 아닌 ‘방향’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지만, 어느 순간엔 유독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왜일까?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치열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에게는 아쉬움과 결핍, 열등감이 남고, 목표를 이룬 이조차도 성취의 기쁨은 잠시, 곧 허무함에 휩싸인다.

이처럼 결핍과 허무라는 상반된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마도 ‘타는 목마름’, 즉 갈애(渴愛)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얻고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점점 깊어지는 허무감. 갈애와 공허의 끝없는 악순환은 곧 현생의 윤회다.

붓다는 사성제를 통해, 갈애가 고통과 불안의 근원임을 밝혔다. 그렇다면 갈애를 없애는 길은 무엇일까? 억누르거나 줄인다고 해결될까? 붓다는 단호하게 말한다. 갈애는 결코 해답이 아니다.

목적지는 남쪽인데, 북쪽으로 방향을 정한 채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다면? 그대여, 지금 당장 방향부터 수정하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과거 여섯 부처님의 공통된 가르침은 ‘칠불통계(七佛通誡)’에 담겨 있다.

“바르지 못한 모든 행위를 하지 말고, 바른 행위를 하라.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의 가르침이다.(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教)”

이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깊다. 여기서 말하는 ‘악’과 ‘선’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 설정을 뜻한다. ‘악’은 탐욕, 분노, 이기심, 배타성으로 드러나며, ‘선’은 자비와 지혜가 일치된 삶, 평온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이다.

이 방향을 세우고, 삶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 자신을 끊임없이 성숙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정기의(自淨其意)’이며, 우리는 붓다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초심 수행자들이 모인 행자교육원에는 붓다의 제자 우바리 존자의 문구가 걸려 있다.

“신심으로 욕락을 버리고, 일찍이 발심한 출가자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하게 걸어가라.”

또한, 선종의 승찬 대사는 말했다. “털끝만 한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든다.”

지금 나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마음을 청정히 하는 수행, 그 가르침이 바로 ‘칠불통계’다.

〈화순 불암사 주지〉